



‘중대재해 처벌’ 제주 1호 건설사 나오나

지난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중 근로자 사망
노동청 “주도적 역할 건설사 조사… 8월 중 마무리”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적용 시 제주 첫 사례가 된다.

광주시방노동청에 따르면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를 발주한 A건설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다음 달 중순 마무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올해 2월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12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굴착기 운전자 A(58)씨가 붕괴된 굴뚝 잔해에 매몰돼 사망한 것이다.

당초 건물 해체 계획을 보면 ▷유리 등 내부 수장재 제거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 철거 ▷철제 대들보, 벽체, 기둥 해체 등의 순서였다. 굴뚝의 경우는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 서인지 공사 첫날 굴뚝 철거가 이뤄졌다가 사고가 났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수사를 진

행하고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 산재예방지도팀 관계자는 “철거 공사에서 발주 등 주도적 역할을 한 A건설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8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수사 대상과 검토할 내용이 워낙 많아 송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주대학교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산재예방지도팀과 별도로 제주경찰청에서는 A건설사 현장소장과 철거 현장 감리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송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돼 검찰에 송치될 경우 제주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중형 확정

대법원 어제 상고 기각 결정
백, 징역 30년…김, 징역 27년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49)·김시남(47)에 대한 사건 발생 1년 만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을 선고 받은 백씨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당시 16세)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

씨의 아들로, 백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백씨와 김씨는 살인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백씨는 “직접적으로 A군을 죽인 범인은 김시남”이라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미필적 고의는 있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백광석이 했다”고 맞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범원까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진술 내용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김씨가 A군을 직접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송은범기자

도로 막고 차 세워 운전자 봤더니…

음주에 세금 체납, 수배자 등 줄줄이 적발

단속 2시간 만에 음주운전은 물론 수배자까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음주운전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수배자 1명이 적발됐다. 아울러 총 967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미납한 혐의로 차량 10대도 단속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조수석에 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에 나섰고, 단속 미달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02%가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무면허,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돼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C씨는 벌금 미납에 따른 수배자인 사실까지 들통났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차량 10대 중 1대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나머지 차량들은 현장 혹은 분할 납부를 약속해 풀려났다. 송은범기자

도내 항포구 점검 결과 소방시설 불량 수두룩

제주에서 최근 선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뤄진 안전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2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겹겹인 항·포구인 제주항과 한림항, 모슬포항, 서귀포항, 성산항, 추자항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및 장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상 시설 161개 중 42개 안전시설에서 불량 사항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화기 보관함 16건(중압불량·문 파손 등) ▷인명구조함 16건(경고표시등 불량·구멍조끼 노후 등) ▷소화전 5건(몸체파손·스핀들 고장 등) ▷비상소화장치 4건(문 파손·호스릴 비상소화장치 고장) 등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비비 5억 4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어선 밀집 접안구역에 소화기 보관함을 보강·설치하기로 했다. 제주소방은 겹겹인 항·포구가 아닌 항·포구 109개소에 대해서도 다음 달 12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불량 사항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 조치하고 향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폭염경보 내려진 날 폭염경보가 발효중인 28일 제주시 서광로 도로가 뜨겁게 달궈진 지열로 차량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코로나 격리환자 1만명 넘었다

최근 일평균 1637명 감염되며 확산세 여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839명이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11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602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1만1460명이 확진됐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37명을 나타내고 있다.

1만212명의 확진 환자가 격리 중에 있으며 이 중 1만147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없으며 도내 위중증 환자는 1명, 치명률은 0.07%이다. 강다혜기자

물질하던 80대 해녀 숨져

서귀포시 남원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80대 해녀가 숨졌다.

2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40분쯤 남원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A(82)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숨진 해녀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의 85% 이상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사망 원인은 대부분 심장마비다. 백금탁기자

음주운전 사고 30대 집유 피해자 무면허 운전 고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관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백금탁기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3·여)씨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강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역시 무면허운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이모프
높은 저항성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팰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AIN**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